

창업기업 신기술 제품 덕진구청사에

전주시, '화장실 악취 탈취기' 40여 대 구매 통해 홍보·판로확보 도와... '기업 기 살리기' 일환



창업 기업 제품 '화장실 악취 탈취기'

전주시가 창업 기업의 판로 확보를 돕는다.

시는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주 지역 한 창업 기업의 신기술 제품을 덕진구청사에 설치, 청사를 오가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해당 기업은 전주대학교 벤처 창업관에 입주한 창업 기업으로 오랜 연구 끝에 화장실 악취 탈취기를 개발·생산하는데 성공했다. 이 제품은 용변 중 냄새가 확산되기 전 양변기 수조로 냄새를 흡입해 물에 녹여 냄새를 없애줘 중간에 물 내림 없이도 세균 감염을 방지하고 물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이다.

우선 40여 대를 덕진구청에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완산구청 등 여타 시설에도 점차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가 추진 중인 '기업 기 살리기'는 전주를 사람, 생태, 문화와 따뜻한 일자리가 있는 가장 인



'꽃심, 나르샤' 제작 발표회

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민선 6기 후반기 7대 핵심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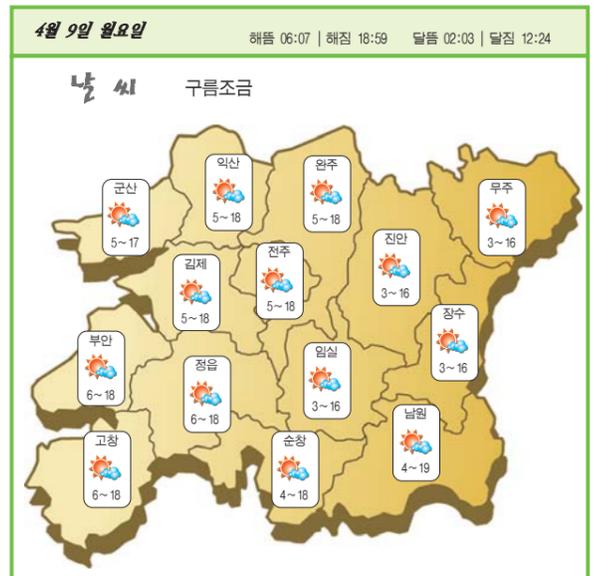
특히 기업 기 살리기 기업 방문 중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가 없

었던 6일 오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가 열린 가운데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융복합 예술 공연인 '꽃심, 나르샤' 제작 발표회가 열리고 있다.

어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애로 사항을 많이 가능성 있는 창업 기업을 적극 지원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방침 아래 지역 기업이 처음 출시하는 제품인 만큼 전주시가 첫 구매자가 돼 이용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힘써 왔다.

안동일 중소기업과장은 "지역 기업

을 키우고 기업의 기를 살려 작지만 세계에서도 통하는 독일형 강소 기업을 키워내기 위해서라면 작은 것부터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판로를 찾고 매출이 늘어나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도교육청, 학생 수학동아리 100팀 지원

주제탐구·활동중심 각 50팀씩... 13일까지 신청 받아

전북도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생 중심의 수학동아리를 구성하여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발적인 학습동기를 형성하고, 다양한 수학 탐구 활동과 학생들의 열린 사고력 및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생 수학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학생 수학동아리 지원 신청 기한은 오는 13일까지이며, 모집 동아리 영역은 수학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활동을 실천하는 주제탐구 수학동아리 50팀, 다양한 수학 관련 활동을 실천하는 활동중심 수학동아리 50팀 등 총 100팀을 모집하여 동아리 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방과 후,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교사 주도가 아닌 학생 주도로 자율적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며, 11월에는 학생 수학동아리 학술제에서 동아리 활동 운영 결과 발표를 통하여 상호 공유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학생 수학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이 다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며,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 사고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삼민 기자

전주형 사회 주택 공급 사업 첫 결실

전주시 팔복동 추천 마을에 마련된 전주형 사회 주택 제1호인 '추천'에 8가구 19명의 시민들이 입주하면서 전주형 사회 주택 공급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전주시는 지난 7일 팔복동 추천 마을 소재 사회 주택 '추천' (덕진구 추천2길 20)에서 사회 주택 입주자와 전주시 주거 복지 공공 건축가, 팔복동 마을 주민, 운영 사업자인 한국 주거 복지 사회적 협동 조합, 동안산동 '전주 달팽이집' 운영 사업자인 민달팽이 주택 협동 조합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가졌다.

전주형 사회 주택 공급 사업은 공공 자산과 민간의 역량을 합친 민관 협력이 사업의 핵심으로 지난 해 시에서 5억원(감정 평가 기준) 이내의 토지(건물)를 매입해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인 한국 주거 복지 사회적 협동 조합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장기간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운영하게 된다.

사회 주택 입주자들은 시세 80%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최대 20년까지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 사회 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입주자들을 위한 맞춤형 공동체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입주식 행사는 운영 사업자인 한국 주거 복지 사회적 협동 조합 김정태 이사장의 인사말과 전주시의 사업 설명 및 경과 보고, 팔복 추천 마을 주민 대표의 환영사, 입주주민 소감 발표, 현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태 이사장은 "전주시에서 처음

으로 실시하는 사회 주택 공급 사업에 한국 주거 복지 사회적 협동 조합이 선정돼 운영을 맡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팔복동 추천 마을 사회 주택 입주를 필두로 전주형 사회 주택이 확산 보급돼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주시 사회 주택 '추천'은 팔복동 새뜰 마을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한 시범 사업으로써 전주시 제1호 소셜 하우스인 사회 주택이며 공급 물량인 다세대 주택 2개동 9가구 중 현재까지 8가구 19명이 입주를 완료한 상태다.

임대료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23~25만원으로 현재 1가구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날 시 소유 주택을 활용한

리모델링형 청년 셰어하우스 사회 주택이며 전주시 제2호 사회 주택 '전주 달팽이집'도 현판식을 하고 입주식을 마쳤다.

임재준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사회 주택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 효과가 기대되고 다양한 모델의 맞춤형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 같다"며 "올해는 민간이 건물(토지)을 제공하면 시에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건물 임대부형 사회 주택 공급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사회 주택에 관심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팔복동 추천 마을 사회 주택 입주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한국 주거 복지 사회적 협동 조합(063-255-0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제1·2호 추천·전주 달팽이집 입주 시세 80%이하 임대료 20년까지 거주

NEIS 교무업무 학년중 사용자 교육

9~13일 전주·완주·익산

전북도교육청은 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2018학년도 NEIS 교무업무 학년중 사용자 교육'을 전주·완주·익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NEIS 현장지원단 교사 10명을 강사로 위촉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성적담당 교사 3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교육은 학교에서 성적 처리, 학생생활 등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교무업무와 관련하여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학기 운영 시기별로 주요업무에

맞춘 실질적인 교육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중에는 NEIS 접속 실습은 물론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시스템 사용법과 노하우를 안내해 실제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번 연수는 중·고·특수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초등학교 담당자 교육은 5월 중 교육연구정보원에서 4월 간 실시할 예정이다.

NEIS는 시·도교육청에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 행정기관 및 초·중등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 행정 처리는 물론 전 교육 행정 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교무학사·인사 등 교육 행정 전체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삼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